

---

변경(邊境)으로(부터)의 귀환-일본인 여성'들'의 전후를 말하다

---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

## / 목차

---

0. 프롤로그 - 행로 없는 귀로, '히키아게'가 삭제하는 식민의 정치성
  1. 후쓰카이치 보양소 앞 이상한 비석을 마주하고 - 새겨진 것과 새겨지지 않은 것
  2. 대륙의 신부와 대륙의 어머니, '낳는 성'과 '돌보는 성'
  3. '낙태지시'와 우생보호법이 허락하지 않는 존재- '불법임신'과 '혼혈아'
  4. '비문 없는' 처녀비와 새롭게 새겨진 비문 - 구로카와 개척단의 사례
  5. 공적론(功績論)과 희생양론, '성의 방파제'라는 전제에서 출몰하는 일본인 '위안부'
  6. '가해국 국민' 혹은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사이를 공회전하는 일본인 '위안부' 논의  
에필로그- 여전히 변경(邊境)인 곳으로,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못한 귀환여성'들의 경험을 재배  
치하기
- 

### 0. 프롤로그 - 행로 없는 귀로, '히키아게'가 삭제하는 식민의 정치성

히키아게(引揚げ, 이하 '귀환')는 전쟁과 식민지 종주국 국민으로서 해외(外地)에 살던 일본인이 패전 이후 귀국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나미 일본사 사전』(岩波日本史辞典)에는 “패전 시에 군인이나 일반 일본인(邦人) 등 660만 명 이상이 해외에 재류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귀환은 1946년 말까지 500만 명을 넘었고, 집단적인 귀환은 58년까지 계속되었다. ....중국 동북부와 소련 관할 지역으로부터의 귀환은 곤란의 극에 달해, 잔류 고아나 시베리아 억류 등의 문제를 낳았다<sup>1)</sup>고 기술되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전적 기술에서는 비가시화된, '일반 일본인'으로는 평균화될 수 없는 여성'들의 귀환 경험을 다룬다.

만주에서 귀환한 여성들의 경험을 젠더사적 관점으로 연구해 온 야마모토 메유(山本めゆ)는 가토 요코(加藤陽子)의 선행연구<sup>2)</sup>를 참조하여, 일본인의 처우를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 중국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중국이 주도하여 일본인들의 '강제 송환'이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패전으로 '귀환'을 강요당했음에도, 마치 자발적으로 이동을 결심한 것처럼 '히키아게'라고 부르는 것은 '패전'을 '종전'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만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이동의 '귀로(復路)'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들의 '행로(往路)', 즉 그 땅에 이주하게 된 경위가 사장될 뿐 아니라, 지배자의 지위를 잃고 쫓겨난 전(前) 식민지 개척자라는 그들의 정치성마저 표백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며 용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요청한다.<sup>3)</sup>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명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外地)에서 일본(内地)으로 귀국하는 일본의 민간인에 대해서는 '귀환'을, 군인/군속에 대해서는 '복원'(復員)<sup>4)</s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1) 永原慶二, 石上英一, 『岩波日本史辞典』(岩波書店, 1999年).

2) 加藤陽子, 「敗者の帰還-中国からの復員・引揚問題の展開」『国際政治』vol. 109(1995年) pp.110-125. 『戦争の論理-日露戦争から太平洋戦争まで』(勁草書房, 2005年).

3) 山本めゆ, 「生存者の帰還: 引揚援護事業とジェンダー化された〈境界〉」『ジェンダー研究』17号(東海ジェンダー研究所, 2015年) p.71.

4) 광대한 아시아-태평양 각지에 산재해 있던 육해군 군인 및 군속이 일본으로 귀환하는 것을 '복원(復員)'이라 부른다. 본래 '복원(demobilization)'이란 '동원(mobilization)'에 대응하는 용어로, 전시 편제 하에 있는 군대를 평시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군에서는 육군의 '복원'에 해당하는

역사학자 로리 와트(Lori Watt)<sup>5)</sup>는 식민지에서 패전을 맞이한 일본인의 이동에 대해, 구라모토 가즈코(倉本和子)<sup>6)</sup>가 1947년 귀환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 ‘귀환자’를 뜻하는 ‘히키아게샤’(引揚者)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장면을 언급한다.

[내 사촌] 타로는 항상 우리를 ‘진짜’ 일본인이 아닌 마치 다른 인종인 것처럼 ‘히키아게샤’라고 불렀다. 나는 일본에 도착했을 때 사세보 항구에서 이 ‘히키-아게-샤’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 우리를 환영해 준 남자는 “동료 히키아게샤 여러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일본인 여러분,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sup>7)</sup> (강조는 필자에 의함)

이 구절은 ‘외지(外地)’의 식민자였던 귀환자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이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느낌을 잘 보여준다. 구라모토는 ‘내지(内地)’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다른 인종인 것처럼” 귀환자들의 인종적 구성을 의심했던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히키아게샤’는 궁극적으로 일본 혈통인 사람들만을 위한 범주가 되었다. 내지의 일본 사람들은 전후에 만들어진 ‘히키아게샤’라는 신조어로 외지에서 온 귀환자들을 명명함으로써, 이들을 ‘동료 일본인’과는 구별되는

용어를 ‘해원(解員)’이라 불렀다. 해외 부대의 복원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일반 명령 제1호(1945년 9월 2일 자)에 명시된 항복 대상 국가와 각국 군의 관리 지역 구분에 따라 각각 항복 조인식을 치른 뒤, 무장 해제 후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 귀환까지 대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련을 제외한 각 연합국 관리 지역으로부터의 귀환 시기는 아래와 같다.

- (1) 미국군 관리 지역: 1945년 9월 ~ 1946년 5월
  - (2) 중국군 관리 지역: 1945년 11월 ~ 1946년 7월
  - (3) 호주군 관리 지역: 1945년 11월 ~ 1946년 7월
  - (4) 영국군 관리 지역: [제1차] 1946년 5월 ~ 1946년 9월, [제2차] 1947년 3월 ~ 1948년 1월
- 한편, 소련군 관리 지역에서 무장 해제된 각 부대는 작업대로 편성되어 시베리아 등지로 이송되었는데, 이는 ‘시베리아 억류’로 알려져 있다. 그 수는 60만 명에 달했으며 군인·군속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리와 민간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조선인 피해자들은 1만 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억류자들의 귀환은 1946년 12월 이후에 시작되어 1956년까지 대체로 종료되었다.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終戦80周年インターネット特別展-菱みゆく 帝国日本一降伏復員引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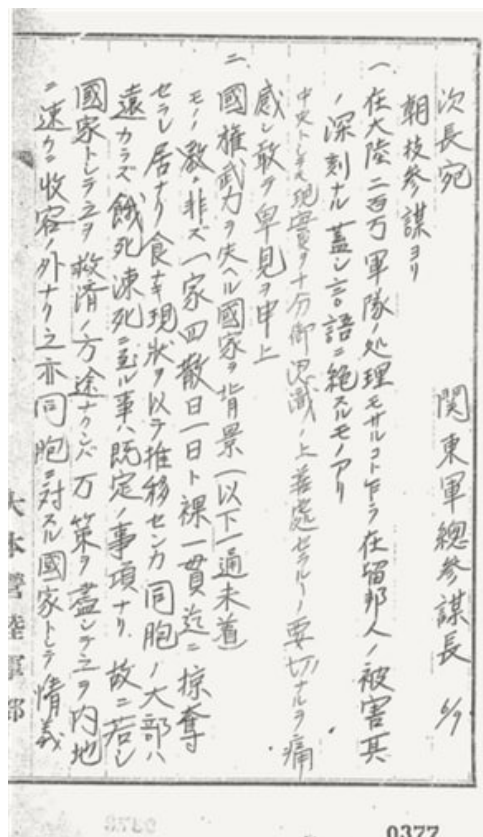
<https://www.jacar.go.jp/exhibition/shusen80/chapter1/>

- 5) 로리 와트는 저서 *When Empire Comes Home: Repatriation and Reintegration in Postwar Japan*(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0)의 후반부에서 전후 1980년대까지 일본 사회가 식민지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을 어떻게 묘사해 왔는지 대중문화를 통해 밝혀낸다. 전후 일본의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 중 일부는 식민지에서 자라 귀환한 이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개인들의 배경이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특히, 각지의 <귀환자 신문>을 활용함으로써, 귀환자들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후 사회가 자신들에게 덧씌우는 이미지에 도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 6) 구라모토 가즈코는 1927년 만주 다이렌(大連)에서 태어나 자랐다. 구라모토의 할아버지는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 경찰의 일원으로 다이렌에 도착했다. 식민지 개척자 3세로서 17세의 쿠라모토는 1944년에 전쟁 수행과 조국의 대의를 위해 적십자 간호대에 입대했다. 로리 와트가 인용하고 있는 책 『Manchurian Legacy』에는 다이렌에서의 가족의 삶, 러시아와 국민당 정부, 그리고 공산당 정부가 만주를 되찾기 위해 벌인 전투 속에서 버려진 민족으로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그 후 황폐해진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구라모토는 피식민지에 대한 식민자의 억압에 기초한 문화를 묘사하고, 그녀의 가족이 항복 선언 전까지 전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거의 입지 않은 채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음을 밝힌다. 식민지 사회에서 보낸 성장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만주에서의 가족의 경험, 그리고 일본이 문화적 격변에 휩싸여 있던 시기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 일본으로 돌아온 ‘귀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로리 와트가 인용하고 있는 책은 영어본 Kazuko Kuramoto, *Manchurian Legacy-Memoirs of a Japanese Colonist*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4)이며, 일본어본은 倉本和子, 『満州の遺産』(文芸社, 2003年)이다.
- 7) Kazuko Kuramoto, *Manchurian Legacy-Memoirs of a Japanese Colonist*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4) p.118. Lori Watt, 위의 책 p.56에서 재인용.

집단으로 보았다. 귀환자들에게 일본 국적자로서의 지위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로리 와트에 따르면, '히키아게샤'는 다른 언어권에서 '식민지 귀환자'나 '본국 송환자'를 뜻하는 표현들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령 알제리인을 지칭하는, 종종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피에 누아르(Pied noir)'는 식민지 기간 내내 존재했지만, 알제리의 프랑스인들은 1962년 본토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 명칭을 접하게 되었다. 영단어 'repatriate'는 조국을 뜻하는 어근 'patria'를 포함하고 있어 귀환자와 고국 사이의 관계를 함의한다. 반면 '히키아게샤'는 그 사람의 식민지적 정체성이나 국가와의 유대보다는 '귀환하는 행위 자체'를 더 강조한다.<sup>8)</sup> 식민지나 점령지였던 외지에서 내지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은 이전의 삶의 내력으로부터 일거에 단절되어, 귀환의 순간을 기준으로 내지의 일본인들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었다.

패전 당시 구 만주국에는 약 155만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원수는 군인을 제외한 것이다. 당시의 재만 일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관동군 아사에다 시게하루(朝枝繁春) 참모의 현황 보고 자료에는 “대륙 내 200만 군대의 처리도 문제이지만, 재류 일본인(邦人)의 피해는 그 심각함이 가히 언어도단이라 할 만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간인의 피해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는 점은 현지의 치안이 악화된 상태였음을 짐작케 한다.



<자료1> 昭和20年9月6日次長朝枝参謀ヨリ在留邦人被害の件(1945년 9월 6일 아사에다 시게하루 참모로부터 재류일본인 피해의 건 Ref. C15010666200)

<https://www.jacar.go.jp/exhibition/shusen80/chapter6/>

8) Lori Watt, 위의 책 p.56-57.

만주의 일본인들은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과 8월 15일의 패전에 의해 지배자/식민자에서 피난민으로 그 위상이 하루아침에 전복되어 비참한 상황에 처했고, 이들의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일본에서도 전쟁의 '피해서사'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귀환 경험을 피해서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동시에 제국일본으로서의 경험을 탈색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총 18개의 귀환항 중 10개소에는 1945년 10월 점령군 총사령부(GHQ)의 지령으로 후생성의 관할 하에 귀환원호국(引揚援護局)이 설치되었다. 일본이 처음으로 경험한 매우 광범위한 집단적 인구 이동이었던 민간인들의 '귀환'과 병사들의 '복원'을 관리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해외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귀환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었고, 지역에 따라 그 상황도 크게 달랐다.

귀환한 '그들'은 귀환 이전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농지를 찾아 바다를 건넌 만주 이민자는 식민지 지배의 틀림없는 수혜자임과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는 '가진 것 없는 자'였으며, 가진 것이 없었기에 제국의 주변으로 쫓겨났고, 쫓겨났기 때문에 식민자라는 낙인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국책에 고무되어 신천지에 희망을 걸었으나, 소련과의 개전 시에는 관동군에게 버려졌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억류되었고, 본토에 생환한 후에는 지역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조차 개척 농민에게 전형적이라 여겨지는 경험에 불과하다. '그들'은 상인이었고 회사원이었으며, [식민지와 점령지, 개척지의] 관리이자 그 가족이기도 했다. 지역이나 계층의 차이는 물론, 이동을 뒷받침한 요인이나 정주할 사회와의 관계, '고향(home)'과의 유대나 귀환 후의 생계 수단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귀환 이민'9), '입식형 귀환 이민'10)인 것이다.11)

'외지' 일본인들의 '귀환'문제를 다룰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일본 신민'의 자리에 놓였던 조선인과 대만인 등 '외지'의 이민족의 존재이다. 이들은 당시 제국 일본의 신민 총수 약 1억 명의 30%에 달했으며, 일본의 총력전 체제 하에 노동력과 병참으로, 위안부로 동원되었다.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1943년 카이로 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국적을 이탈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귀환과 복원과 다른 형태로 조선과 대만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돌아가지 못하거나/않거나, 일본에 남거나, 일본으로 들어왔다.

식민지를 상실한 일본이 제국에서 이탈하자, 이는 다른 집단들의 변용을 수반했다. 해외 일본인이 '히키아게샤'로 변모한 것처럼, 한국인, 대만인을 포함하여 일본 내에 있던 전 제국 신민들에게도 새로운 분류가 필요했다. 구 식민지의 제국 신민들은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전(前) 식민지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이 '제국 신민'에서 '재일 외국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히키아게샤'의 양산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일어났다.12)

이 글에서는 만주에서 귀환한 일본인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

9) 辻輝之「戦後引揚げという〈方法〉——帰還移民研究への視座」島村恭則編『叢書 戦争が生み出す社会II 引揚者の戦後』(新曜社、2013)p.376, 山本めゆ, 「戦時性暴力の再-政治化に向けて-『引揚女性』の性暴力被害を手がかりに」『女性学』日本女性学会学会誌 22号(2015年) p.47에서 재인용.

10) 大川真由子『帰還移民の人類学——アフリカ系オマーン人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明石書店、2010) p.25, 山本めゆ, 위의 글(2015) p.47에서 재인용.

11) 山本めゆ, 위의 글(2015) p.45-47.

12) Lori Watt, 위의 책 p.58-59.

과 조선인이 놓았던 상황과 재일조선인/대만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들의 경험을 도려내고 일본인의 ‘귀환’과 ‘복원’을 다루는 것만으로는 ‘전후’도, ‘해방’도, 그 온전한 윤곽을 그려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또한 귀환한 일본인 여성들 사이에도 식민/개척과 귀환의 경험에는 평균화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계급, 젠더, 이민지/식민지/개척지/점령지, 세대 등의 요인이 교차하며 각자의 ‘귀환’과 ‘전후’를 겪어냈기 때문이다.

패전 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일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구축되어온 여러 담론과 선행연구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귀환여성들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공적인 자리에서 증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들의 경험이 국가와 공동체에 의해 전쟁 피해서사로 횡령되고, 공적(功績)과 희생이 강조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한다.

특히, 패전 당시 낙태죄 체제 하에서 국가의 지시와 묵인 하에 여러 귀환항에서 벌어진 ‘초법 규격 조치’, 즉 ‘낙태지시’에 따른 임신중지 시술 혹은 귀환여성의 임신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이른바 ‘인도주의적’ 의료구호 활동에 관한 일본의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해국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라는 말로 뭉뚱그릴 수 없는 경험들이 우생보호법 등 당대의 법/제도적인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다시금 여성의 몸과 삶을 윤택시켰는지, ‘소련군의 강간’으로 말해지는 사건에서 지워지는 공모 관계란 무엇이며 그러한 공모가 ‘성의 방파제’라는 인식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청자와 유족회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당사자의 증언은 어떤 변형을 겪게 되는지, 끝내 피해 서사로조차 편입되지 못한 일본인 ‘위안부’는 누구인지, 그들이 포섭된 공창제가 조선으로 이식되었을 때 조선인 여성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연쇄적인 물음 속에서 말문을 열어보려 한다. 또한 답사에서 조우한 ‘장소들’과 이제는 그곳에 없는 ‘존재들’의 삶과 죽음의 내력을 알아가는 사후적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 여러 문제군(群)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전후경험이 국가의 피해서사에 귀속되거나 혐오를 동반한 배외주의에 횡령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배치/재해석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데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 1. 후쓰카이치 보양소 앞 이상한 비석을 마주하고 - 새겨진 것과 새겨지지 않은 것

2024년 7월과 2026년 2월,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 후쿠오카현(福岡県) 지쿠시노시(筑紫野市)의 작은 온천마을에 남아있는 후쓰카이치 보양소(二日市保養所) 터와 위령시설, 그리고 후쿠오카시 시민복지 프라자(福岡市市民福祉プラザ)의 귀환여성 관련 상설 전시를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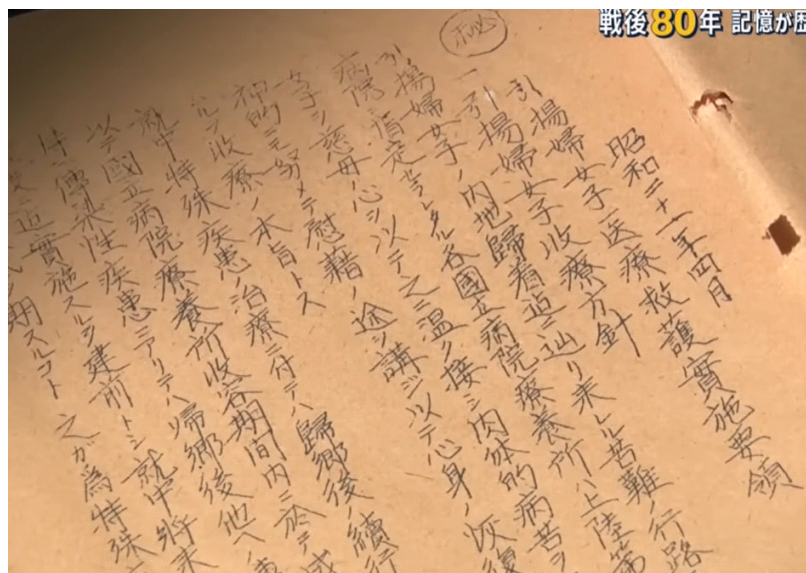
후쓰카이치 보양소는 패전 직후 만주와 조선 등지로부터 귀환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본인 여성들의 임신중지와 성병 치료를 목적으로, 경성제국대학 관계자들이 기획한 의료 활동<sup>13)</sup>의 일환으로 설립된 시설이다. 이들은 패전 직후 조선반도 북부에서 온 피난민을 위한 재난민 구제(救濟)병원을 경성에 설치하고, 경성에서 온 열차 안이나 부산의 이동 기지, 귀환선의 선상을 비롯한 과정에서 의료 구호를 제공하였으며, 하카타 상륙 후에는 재외동포 원호회 구의부

13) 경성제국대학 관계자가 귀환자에 대해 실시한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西日本図書館コンサルタント協会, 『ある戦後史の序章: MRU引揚医療の記録』(1980)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경성제국대학 의료진의 활동과 후쓰카이치 보양소를 다룬 관련기사로는 朝日新聞(1995.8.9.)를 참고할 것.

(救医部)를 결성했다. 후쓰카이치 보양소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개설되었다. 1947년 가을에 폐소 될 때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곳에서만 약 500여 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행해졌다.<sup>14)</sup>

후쓰카이치 보양소와는 별도로 후생성은 1945년 8월말 규슈대학 산부인과 등에 극비로 ‘낙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후생성에서 각지의 국립 의과대학에 보낸 「귀환부녀자 의료구호 실시요강」(引揚婦女者医療救護実施要綱)은 귀환 여성의 임신과 관련하여 “정규 분만을 하기에 부적당한 자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을 실시할 것(正規分娩不適の者に対しては妊娠中絶を実施すること)”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자료2) ‘정규 분만을 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은 귀환과정에서 소련군이나 중국인, 조선인에게 당한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혼혈아’를 임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부터 임신중지 시술에 관여했던 규슈대학 산부인과의 의료진의 증언이 신문보도<sup>15)</sup>와 회상기 등의 출판물<sup>16)</sup>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패전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의료진과 규슈대학 의료진은 같은 시기에 하카타의 귀환항을 거점으로 활동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자료2> “희생된 여성과 아이-종전후에도 만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그리고 중절”(犠牲になるのは女性・子ども-終戦後も…満州で起きた“性暴力”そして“中絶”)이라는 제목으로 ANN뉴스에서 방영된 영상 캡처화면.” (報道ステーション 2025.8.12.) 문서의 오른쪽 위편에 ‘극비’(秘)라는 표기가 보이고 지시서가 작성된 날짜는 1946년 4월로 기재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j5GAyG1Jis>

일본에는 우생정책의 관점에서 1940년부터 1948년까지 ‘유전성 질환의 소질을 가진 자’에 대한 불임수술을 허락하고, ‘건전한 소질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임신중지를 제한했던 <국민우생법>이 존재했다. ‘낙태죄 체제’<sup>17)</sup> 하에서 임신중지 시술은 패전 당시 ‘불법행위’였고, 시술을 감

14) 山本めゆ、「『二日市保養所』との出会いと再会」、『福岡女たちの戦争』No1(戦後女性記念継承プロジェクト, 2016年) p.65.

15) 「新人間の条件」東京新聞(1980.1.7.) 등.

16) 武田繁太郎, 『沈黙の四十年: 引き揚げ女性強制中絶の記録』(中央公論新社, 1985), 石濱淳美, 『太田典祀と避妊リングの行方』(彩図社, 2004年) 등.

17) 메이지정권(1868년-1912년)은 정권 수립 초부터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태어난 아이를 호적에 등

행한 의사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귀환항에서의 임신중지 시술은 후생성과 인양원 호칭의 목인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에 의사나 여성이 기소되는 일은 없었다. 하카타항 이외의 다른 귀환항 주변에도 유사한 시설이 개설되었지만, 그곳에서 겪은 여성들의 경험은 일본 전후사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공론장을 비롯한 페미니즘 담론의 관심사에서 오랜 기간 주변화 되어 오다가 귀환 7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후쓰카이치 보양소가 있던 곳에 지금은 사단복지법인 사이세이카이(濟生會)가 운영하는 특별 요양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 있다. 시설 관계자들의 안내로 관련 위령시설을 볼 수 있었다. 주차장 한쪽에 어질 ‘인(仁)’자가 새겨진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미즈코(水子: 유산하거나 임신중지한 태아)’를 애도하기 위한 자그마한 위령시설(水子地蔵尊のお堂)이 마련되어 있었다. 해마다 5월 14일이 되면 이곳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추모제를 연다고 한다. 비석은 1981년에, 태아의 위령시설은 1982년에 세워졌다. 비석 뒤에 새겨진 글귀는 아래와 같다.



<사진1> (좌) 후쓰카이치 보양소 터였던 곳에 세워진 경성제국대학 의료진의 공적을 기린 비석(1981년 건립), (우) 유산/사산 혹은 임신중지한 태아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지장보살(水子地蔵尊のお堂/1982년 건립) @ 박상환

“쇼와 21년, 22년(1946년, 47년)에 하카타 항에는 매일같이 만주에서 귀환하는 배가 들어왔다. 그 중에 불행히도 소련군의 강간으로 임신한 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관계자들이 이 여성들을 후쓰카이치 보양소에 데려와 선처해 주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쉐다 가코(千田夏光)의 르포르타주를 통해 알게 되었다. 당시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했던 의사들의 인도주의적 행위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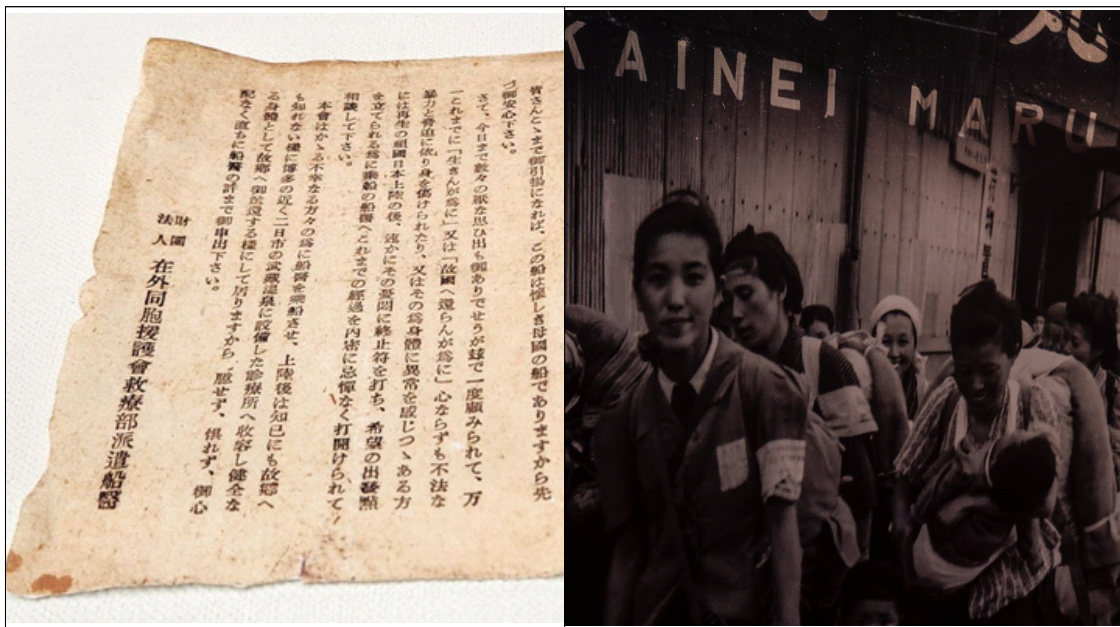
록시켜 파악했다. 가장(호주)의 신고와 해당기관의 허락으로 성립되는 혼인 이외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간통과 혼외출생(서생아)에 법적 차별화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창제를 정비해서 국가 관리의 성매매체제를 만들어갔다. 공창제는 군 ‘위안부’의 형태로, 낙태죄 체제는 극단적인 출생증강 정책으로 절정에 이른다. 후지메 유키, 『성의 역사학-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삼인, 2004년) 14쪽.

이 더 지난 지금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녀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당시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을 때, 이 비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번역과 강조는 필자에 의함)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 비석이 후쓰카이치 보양소에서 사망한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비인 줄 알았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였던 남성이 센다 가코의 르포르타주<sup>18)</sup>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귀환여성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각자의 고향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문구에는 ‘성폭력’에 대한 1981년 당시의 낮은 인식 수준 혹은 몰이해가 드러나 있다. 결국 이 비석은 경성제국대학 의료진의 인도주의적이고 자발적인 의료행위를 ‘상찬’(賞讚)하는 내용만 적혀있는 ‘공적비’(功績碑)인 셈이다.

유산이나 임신중지 시술로 보양소 마당에 묻힌 태아들의 위령시설인 자그마한 불당과 낙태법 체제하에서 시술을 감행한 의료진의 ‘공적’을 기리는 비문을 마주하고, 생략된 존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혼혈아 출산에 대한 낙인이 두려워 귀환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거나, 임신중지 시술과정에서 사망한 여성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돌아가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냈을 여성들의 귀로는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러한 수난의 역사에 압도되지 않는 행로의 경험, 즉 식민/개척/이민자 여성들의 경험은 어떻게 피해사실과 함께 가해자성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맺고 있던 관계와 놓여있던 삶의 조건 속에서 말해질 수 있을까.



<사진2> (좌) 귀환선 안에서 귀환여성들에게 배포된 전단지 「不幸なるご婦人方へ至急ご注意!」(불행한 일을 겪으신 부인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원호회 구의부(救医部)가 제작하였다. (우) 하카타항으로 귀환하는 일본인 여성들의 모습 @‘귀환항 하카타’ 자료전

하카타의 도진마치(唐人町)<sup>19)</sup>에 소재한 <자료전 ‘인양항 하카타’고난과 평화에 대한 염원>은

18) 千田夏光, 「二日市墮胎医病院」(晩聲社, 1977年).

일본 최대급의 귀환항으로서 하카타항이 완수한 역사적 역할이나, 귀환자들의 수난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 상설 자료전이다. 2022년 3월 29일 상설전시가 리뉴얼되었다. 귀환자들이 기증한 자료 148점이 네 개의 세션, 즉 1)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과 종전 전후의 혼란, 2) 피난민 생활과 조국으로 가는 길, 3) 하카타항 귀환과 원호 활동, 4) 쇼후쿠료(聖福寮)와 후쓰카이치 보양소(二日市保養所)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된 귀환의 역사는 ‘수난사’, 즉 귀환자들이 겪어야했던 ‘노고’를 강조하는 역사로 수렴되어 있었고, 이러한 수난사가 비약적으로 평화를 소환하는 식이었다.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는 귀환자들의 다양한 경험이, 1960년대에 원폭 피해에 입각한 반전(反戰)사상에 접목되어 ‘귀환의 노고’로서 수렴되기까지의 변천을 상세하게 추적한 바 있다.<sup>20)</sup> 야마모토 메유 또한 전후 일본의 ‘반전·평화’ 슬로건은 피폭 국가라는 공적인 기억에 의거한 ‘희생자 내셔널리즘’에 지탱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새롭게 ‘귀환자’의 경험이 ‘희생자 내셔널리즘’의 ‘연료’로 추가되었다고 강조했다.<sup>21)</sup>

전시 해설은 귀환항에서의 임신중지 시술을 인도주의적 의료행위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료전 시설의 1층에는 귀환선(引揚船) 안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를 권유하기 위해 배포된 전단지(사진2), 경성 일본인 세화회 회보, 예방접종 증명서, 귀환증명서, 복원증명서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같은 건물 2층 도서관에서는 귀환과 관련한 후쿠오카의 지역사와 여성사 관련 자료들<sup>22)</sup>이 소장되어 있었다. 만주의 여러 개척단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귀환항으로 들어온 수많은 여성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경로를 거쳐 만주에 가게 되었는지, 만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제2장에서는 전시에서 누락된 귀환여성들의 경험 중 개척단의 운용을 위한 ‘국책’으로서 추진된 젠더화된 여성의 동원이라는 제국의 기획에 조금 더 다가가 보려 한다.

## 2. 대륙의 신부와 대륙의 어머니, ‘낳는 성’과 ‘돌보는 성’

전전(戰前), 많은 일본인들이 국책에 따라 농업 개척민으로서 만주로 이주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이동도 존재했다.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자, 징병되는 남성들이 많아져 이민 정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으로 만주로 보내졌다. 이들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일본 여성들이 만주로 보내졌고, ‘대륙의 신부’로서 개척민의 아내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39년 ‘신부 100만 명 송출 계획’을 결정했다. 일본연합여자청년단이나 일본부

19) <자료전 ‘귀환항 하타카’-고난과 평화에 대한 염원(資料展「引揚港・博多」-苦難と平和への願い)의 전시 장소는 福岡市中央区荒戸3丁目3番39号 福岡市市民福祉プラザ「ふくふくプラザ」1階.

20) 淺野豊美, 「折りたたまれた帝国—戦後日本における「引揚」の記憶と戦後の価値」細谷千博・入江昭・大芝亮編『記憶としてのパールハーバー』(ミネルヴァ書房、2004) pp.273-315

21) 山本めゆ, 위의 글(2015), p.69.

22) 지역 여성사와 관련하여 사토 미즈에(佐藤瑞枝)를 중심으로 후쿠오카 지역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해 온 후쿠오카 여성사 연구회의 ‘전후 여성 기록 계승 프로젝트’(戦後の女性記録継承プロジェクト)의 회지 『福岡 女たちの戦後(후쿠오카 여성들의 전후)』 1, 2호에는 후쓰카이치 보양소나 규슈대학에서 받은 ‘낙태지시’, 이와 관련한 연구와 구술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후쿠오카 여성사 연구회는 주로 구술 기록(청취 조사)과 사료 발굴을 통해 후쿠오카의 전후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단체연맹 등 관제 여성 단체도 신부 송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중국 농민의 딸을 신부로 삼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족협화’를 내걸었지만 잡혼(雜婚)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지의 여성들에게 “낳아라, 늘려라”라는 구호 아래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것이 요구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주에서도 우수한 일본인의 아이를 낳아 줄 아내들이 필요했다. 마쓰다 스미코(松田澄子)는 민족 차별, 우생사상, 순혈주의를 배경으로 내지에서 외지로 다수의 신부를 송출했던 역사를 젠더사의 시점에서 파악하여 “일본 여성의 ‘낳는 성(性)’이 대륙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23)</sup>

만주로 송출된 여성들에게 기대된 역할은 비단 ‘낳는 성’만이 아니었다. 만몽개척청소년의용군을 위한 만주의 훈련소에 료보(寮母, 정식 명칭은 만몽개척의용군 여자 지도자) 제도가 도입되어 1939년부터 패전까지 총 176명이 만주로 건너갔다. 이들은 ‘대륙의 어머니’로 불렸다. 『만주개척연감(滿洲開拓年鑑)』(1941)에 따르면, 척무성이나 만주척식공사가 기대한 료보의 역할은 10대의 젊은 의용대원과 기거를 함께하며, 말동무가 되어주고, 의복을 기워주며, 간호를 하는 등 고향의 어머니, 할머니, 누나가 맡아야 한다고 규정된 돌봄이었다. 당시 만주의 의용대원 사이에서는 훈련소 내에서 간부 습격, 대원들 사이의 폭력 사태 등이 잦았는데, 당국은 ‘둔전병’(屯墾病)이라 불리는 일종의 노이로제(향수병)가 그 원인이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도입된 것이 료보 제도였다. 마쓰다 스미코는 “둔전병은 모성적 돌봄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육친이나 동료들로부터 떼어놓고 먼 미지의 땅으로 보내어 엄격한 훈련을 시켜 개척에 동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련과의 국경 경비에 투입하려는 일본 정부의 비인간적인 식민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일갈한다.<sup>24)</sup>

료보로 동원된 여성들 또한 귀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낳는 성’과 ‘돌보는 성’으로 동원된 여성들의 귀환 이전의 삶은 귀환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강조될수록 보이지 않게 되고, 귀환여성은 식민자/개척자로서의 이민의 경험과 분절되어, 귀환의 피해서사에 매몰되고 만다.

‘불법 임신’이라는 진단명으로 호명되었던 소련군의 강간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낙태 지시’는 국가의 원호나 구제 혹은 의사들의 인도주의적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다른 한편에서, 즉 개척단 소년들과 그들을 아내나 료보가 된 여성들의 삶과 몸을 통제하는 국가의 기획 속에서, 만주 개척이라는 제국의 통치 속에서, 소련군에게 이른바 ‘사설 위안소’를 만들어준 만주 곳곳의 개척단 남성 간부들의 관여 속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남성성의 보전 강박 속에서,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해 견고하게 구축되어온 공적론과 희생양론을 내면화한 여성들의 인식 속에서 여러 억압이 연동되어 구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 3. ‘낙태지시’와 우생보호법이 허락하지 않는 존재- ‘불법임신’과 ‘혼혈아’

한편, 외지로부터 귀환하는 여성들과 미군 점령하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의 임신중지가 크게 늘었던 전후라는 시간대에 일본의 인구정책은 ‘낳자 늘리자’라는 기존의 출산 장

23) 松田澄子, 「滿洲へ渡った女性たちの役割と性暴力被害」, 『生活文化研究所報告』 45号(山形県立米沢女子短期大学, 2018年) p.24.

24) 松田澄子, 앞의 글(2018), pp. 25-26.

령정책에서 인구 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젠더사학자 후지메 유키는 인종주의와 불가분하게 결합된 우생 사상 및 그에 기초한 여성 신체의 관리라는 문맥 속에서 해당 시기 귀환 여성들의 임신중지를 설명하고 있다.

194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우생보호법>은 임신중지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국가가 허락하는’ 임신중지의 범위를 한정 짓는, ‘재생산권의 통제’라는 이면을 갖는 법이다. 후지메 유키는 전후 산아조절운동의 방향 설정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국민우생법>에 무비판적이었던 전전의 ‘낳자, 늘리자’ 주의자들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 중에 일본 정부가 결정한 1941년의 「인구정책 확립요강」에 대해 “황국의 인구정책”을 칭송하고 “대동아 지역 내부에 내지의 인구를 배치하는 일은 아주 긴요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패전으로 식민지를 상실해 ‘과잉인구’를 내보낼 곳을 잃게 된 전후 일본에서 인구 제한을 제한하는 일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한다.<sup>25)</sup> 전쟁 중의 출산 장려와 전후의 인구 제한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제국 일본의 성 정치에 기반한 국책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후지메 유키는 이러한 <우생보호법>에 대해 “불량한 자손을 배제하기 위해 낙태를 허가한다는 낙태죄의 보완법이며, 우생학에 의한 생식통제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우생법>을 계승한 이법이 보수계 의원과 관료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얻은 이유는, 일본으로 귀환하는 길에 소련군, 중국인, 조선인에게 강간당하거나 점령군에 의한 강간 혹은 성매매로 (미군병사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이 ‘혼혈아’를 낳는 현실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적잖이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6)</sup>

성폭력으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혐오와 기피는 아이에게서 가해 남성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경향은 하카타항이나 사세보항 같은 귀환항에서 낙태 시술에 입회했던 이들이 태아를 묘사하는 증언에서도 발견된다.

“일본인이 아닌 태아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얗다거나... 눈 색깔이 다르다거나...”<sup>27)</sup>

“소련 병사에게 범해져 임신한 아기를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 괴물(海坊主) 같아요. 머리에 붉은 털이 삐죽삐죽 나 있고 몸은 아주 하얗거든요”<sup>28)</sup>

야마모토 메유는 위와 같은 증언에서 ‘눈 색깔’이나 ‘붉은 털’ 등 이질적인 외모가 강조되고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단언되는 것에 주목하여, 태아에 대한 제노포빅(Xenophobic)한 표상 속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인 여성의 존재는 한없이 희박해진다고 지적한다.<sup>29)</sup>

특히, 후생성의 관련 자료에서는 귀환과정에서 발생한 원치 않은 임신이 ‘불법 임신’으로 명명되는데, 이는 패전과 그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굴절시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규슈대학 의료진으로 임신중지 시술에 관여했던 이시하마 아쓰미(石濱淳美)는 이러한 국가적 기획이 “일본 정부가 부모 없는 혼혈아의 출생과 성병의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한 ‘국경 전략’이라고 불려야 할 ‘예방’의 방법”이며, 후생성과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초

25) 후지메 유키, 위의 책(2004), 345, 347쪽.

26) 후지메 유키, 위의 책(2004), 341쪽.

27) 『西日本新聞』 1977.8.4

28) 上坪隆, 『水子の譜-引揚孤児と犯された女たちの記録』(現代史出版会1979年) p.236.

29) 山本めゆ, 위의 글(2015), p.74.

법적 조치'를 지지했고, 이는 결국 “일본 국민의 순혈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sup>30)</sup>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슈대학 등 국립 의과대학에 내려진 귀환항에서의 ‘낙태지시’는 ‘국책’과는 다른 층위에서도 말해질 필요가 있다. 귀환과정에서 겪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귀환여성들이 임신중지 시술을 바라는 ‘심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출산 거부는 국가가 우생학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근거하여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정책과 길항하며 때로는 이에 포섭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성제국대학 의료진의 인도주의적 활동 또한 여성들의 처지에 동정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제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구제’ 또한 우생 사상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야마모토 메유는 ‘낙태지시’를 내린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만 ‘혼혈아’가 강제적으로 배제된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태아는 남성에게는 자신의 남성성을 위협하는 ‘침략자’였고, 여성에게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의 흔적’이었다. 가족에게는 재통합을 저해하는 ‘이물’(異物)이었으며 패전국 일본에게는 인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병소’(病巢)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식들이 교차하는 장소가 바로 귀환항이었기 때문에 ‘불법 임신’ 대책은 가능해진 것이다.<sup>31)</sup>

#### 4. ‘비문 없는’ 처녀비와 새롭게 새겨진 비문 - 구로카와 개척단의 사례

아베 야스나리와 가토 기요후미가 「‘귀환’이라는 역사를 묻는 방법」<sup>32)</sup>에서 ‘전후사의 금기’로서 ‘귀환 여성’의 성폭력 피해와 임신중지 시술을 언급한 것은 2004년의 일이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일본인 여성을 향한 집단적·조직적 성폭력과 ‘국가의 묵인 하’에서의 ‘대량 강제 낙태’가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야마모토 메유는 2015년의 논문에서 “전쟁과 성폭력에 관련된 일부 담론 공간에서는 ‘귀환’, ‘성폭력’, ‘낙태’라는 세 가지 소재가 큰 인기를 끌며 망각은커녕 오히려 소란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협한’, ‘협중’이라 불리는 근린 국가에 대한 비난이나 배타주의의 대두가 있다는 것, 즉, ‘귀환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일본인 여성도 강간당했다”는 식의 논리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재료로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sup>33)</sup>

야마모토 메유의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일본의 담론 공간이 귀환자들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궈진 중요한 계기로서, 2013년에 처음으로 ‘당사자의 증언’이 공적으로 발화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귀환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는 소설이나 수기, 의료진의 회고록 등에 수록되어 대중에게 노출되어온 역사가 짧지 않다. 그러나 검열이 존재했던 미 점령기가 끝난 일본에서는 개척단의 역사나 패전의 혼란으로 인한 비참한 도피의 실상을 밝히는 출간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의 시각이나 여성사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은 드물었다. 피해 생존자의 ‘이름’과 ‘얼굴’과 ‘육성’이 공개된 파장은 귀환자들의 경험을 ‘피해서사화’하는 기폭제

30) 石濱淳美, 위의 책(2004), pp.8-10.

31) 山本めゆ, 「父の痕跡—引揚援護事業に刻印された性暴力と混血の忌避」, 『帝国日本の戦時性暴力』(京都大学グローバルCOE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をめざすアジア拠点, 2013年) p.38.

32) 阿部安成, 加藤聖文, 「引揚という歴史の問い方」『彦根論叢』348号(2004年).

33) 山本めゆ, 위의 글(2015), p.68-69.

가 되었다.

2013년 11월 9일, 만몽개척평화기념관의 ‘이야기꾼 강연회’에서 전(前) 기후현 구로카와 개척단원이었던 야스에 요시코(安江善子)는 만주 지역으로부터의 귀환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개척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처녀들은 모두 울면서 **장교들의 상대가 되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야스에의 증언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디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그때까지 귀환 여성이 겪은 성폭력 증언은 제3자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사자가, 그것도 실명을 공표하며 [대중 앞에서] 증언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2017년 8월 5일에 NHK에서 방송된 ETV 특집<고백—만몽개척단의 여인들(告白—滿蒙開拓団の女たち)><sup>34)</sup>에서 야스에 이외의 당사자들도 귀환 과정에서 당시 ‘접대’라고 불렀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증언을 하면서, 구로카와 개척단 여성들의 존재가 비로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그녀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18년 11월 18일 쿠로카와 유족회에 의한 ‘처녀비(乙女の碑)’ 비문 제막식이 거행되었을 때였다.<sup>35)</sup>

패전 직후 현지인들에 의한 습격과 약탈 등으로 구로카와 개척단에도 위기가 닥쳐오는 가운데, 바로 옆에 위치한 구루메(久留米)개척단은 집단 자결을 결행했다. 만주에서 집단 자결한 개척단의 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48개에 이른다. 구로카와 개척단 간부는 소련병에게 현지 중국인들의 습격으로부터 개척단을 지켜줄 것과 식량을 나눠 받는 대신 ‘접대’를 받아들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개척단은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접대소’를 만들었고, 미혼 여성들 15명이 소련병에게 9개월 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구로카와 개척단 여성들의 피해는 ‘접대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귀환 도중 송화강(松花江)에 이르자, 국공내전으로 철교가 파괴되어 나룻배를 타야했는데, 배 값 대신 여성을 바치라고 요구받아 그곳에서도 젊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sup>36)</sup>

1980년대 이후 잔류 고아의 친척 방문과 함께 개척단의 방중 활동이 활발해졌다. 구로카와 유족회의 몇몇 회원들도 1981년 우호 방중단에 참가했고, 이후 현지에서 사망한 4명의 여성 단원을 애도하기 위해 ‘비문 없는’ 위령비인 ‘처녀비’를 건립했다(사진3의 왼쪽 사진). 위령비에는 건립 경위를 비롯한 여타의 설명이 명기되지 않았다. 1981년 당시에는 ‘접대’에 관여했던 개척단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처녀비에 새길 비문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34) <고백—만몽개척단의 여인들>(告白—滿蒙開拓団の女たち)에서 방영되지 않았던 일곱 개의 증언은 아래의 NHK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130365\\_00000](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130365_00000)

35) LIU Gang(劉罡), 「滿洲引揚者の戦争体験の語られ方—黒川開拓団女性の英雄物語の構築を中心に」, 『人文学フォーラム』 4号(2021年) pp.169-170.

36) 松田澄子, 위의 글(2018), p.30.



<사진3>(좌) 1982년 기후현 시라카와초에 비문 없이 건립된 처녀비(乙女の碑) @ 위키디피아 일본, (우) 2018년 기존의 처녀비 옆에 세워진 설명판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https://www.icp.or.jp/akahata/topic/tokuhou/1382/>

2012년에 ‘전후 세대’인 후지이 히로유키(藤井宏之)가 유족회 회장이 되었고, ‘접대’에 공모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지, 청자의 세대와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13년 야스에 요시코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대중 앞에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말문이 열리자, 1981년 이후 40년 가까이 공란(空欄)이었던 처녀비에도 머지않아 비문이 새겨지게 되었다. 2018년 11월 18일 기존의 처녀비 옆에는 4,000자의 비문을 새긴 ‘설명판’(사진3의 오른쪽 사진)이 세워졌다. 설명판에는 당사자 여성의 전쟁 체험, 쿠로카와 개척단의 입식사(入植史), ‘만주국’의 역사와 관동군의 책임 및 만몽 개척단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새로 건립된 설명판에 대해 당사자 여성의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새겨진 비문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LIU Gang(劉罡)은 피해 당사자의 말과 증언이 비문에 새겨지기까지 1990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필’과 ‘수정’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LIU Gang은 가필과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증언의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구축되고 변형되는지, 그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의 증언 이후 야스에 요시코는 자신의 시를 ‘처녀의 곡’(乙女の曲)이라 이름 붙여 1990년에 ‘처녀회(乙女の会)’라는 당사자 여성 모임에서 발표했다 .

소녀의 목숨과 맞바꾸어 마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젊은 처녀의 인신공양 바쳐서 살아가는 개척단<sup>37)</sup>

소녀의 목숨과 맞바꾸어 단의 자결을 막기 위해 젊은 처녀의 인신공양 바쳐서 지키는 개척단 <sup>38)</sup>

(강조는 필자에 의함)

위의 인용문은 1990년대 초 청취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초판이고, 아래의 인용문은 2018년의 해설판 비문에 새겨지면서 바뀐 문구이다. ‘마을의 안전을 지킨다’는 문구는 ‘단의 자결을 막는다’로 수정되었고, ‘처녀의 곡’(乙女の曲)에는 “생각하면 타국의 그 땅에 침략한 일본인 왕도나 토의 꿈을 꾸며 지낸 나날이 부끄럽다”라는 구절이 있었지만, ‘침략’이나 ‘부끄럽다’는 단어는 2018년에 새로 건립된 해설판 비문에는 당사자의 말로서 기록되지 않았다. 처녀비의 해설판이 다른 위령비와 다른 점은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 자신의 말로 시작된다는 점이다.<sup>39)</sup>

그러나 ‘당사자의 말’이란 무엇일까? LIU Gang이 제시한 위의 두 인용문, 그리고 비문에 새겨진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슬픈 마음이었는지, 우리의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강조는 필자에 의함)는 문구에는 피해 여성 스스로가 ‘헌신’, ‘희생’, ‘바쳐서 지키는’이라는, 자신의 말 이전에 이미 회자되어 구축된 공적론과 희생양론을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사자의 말’이라는 것은 고립된 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당사자들과 자신의 말을 들어준 청자들과 ‘접대’에 공모했던 사람들의 가족인 유족회 사람들과의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가까스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의 내면화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판이 요청되는 부분은 살아남은 여성들이 개척단 구성원들이나 유족들, 청자와 맺어온 관계의 비대칭성이다. 그러한 관계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떤 말들이 선택되고 유예되고 유기(遺棄)되는 것일까. “소련군 장교들의 상대가 되어야했다”는 성폭력 피해를 “개척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가진 공적과 희생이라고 바꾸어 말함으로써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야스에 요시코는 어떤 관계의 회로를 거쳤을까. 공적과 희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야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란 무엇일까. ‘당사자의 말’ 속에는 ‘피해’가 ‘공적’으로 변용되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심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녀비가 세워진 사쿠라타이(佐久良太)신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지역 출신 남성 병사들의 무명 위령탑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전쟁 관련 위령비가 모여 있는 장소이다. 지역 병사와 개척단원이라는 상이한 전쟁 체험의 서사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그곳에서 영웅으로 모셔지는 것은 남자 병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패전으로 목숨을 잃었더라도 개척단민의 남성은 영웅이라 칭해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른바 ‘공적이 없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LIU Gang은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둘러싼 서열화’이며, 지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교란한 것은 다른 아닌 구로카와 개척단의 야스에 요시코가 이름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임을 자처한 2013년의 사건

37) 松田澄子・村瀬桃子、2019、「旧満州からの帰国女性の聞き取り調査」『山形県立米沢女子短期大学附属生活文化研究所報告』46号, pp.173 - 195.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78에서 재인용.

38) 平井美帆、「ソ連兵の「性接待」を命じられた乙女たちの、70年後の告白-満州・黒川開拓団 『乙女の碑』は訴える」, 『現代ビジネス』(2017.8.23.), <https://gendai.ismedia.jp/articles/-/52608>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78에서 재인용. 히라이 미호(平井美帆)는 2022년에 『ソ連兵へ差し出された娘たち』(集英社)라는 책을 출간했다.

39)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78.

이라고 말한다.<sup>40)</sup>

그러나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挺身)한 희생자로 자처할 때, 그것만으로 과연 죽음의 서열화에 교란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사자의 말 속에서 포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서열화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받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야스에 요시코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 ‘개척단의 자결을 막기 희생’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남성 병사들이 ‘공적’으로 상찬되고 추모되는 위령의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말하기가 아니고서야 애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성 속에서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사자의 말’이라는 것은 2013년의 증언 이후 맺어온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그러나 동시에 이미 축적된 공적론과 희생양론 속으로 편입되는 분열증적인 상황 속에서, 변용을 거치며 해설판에 새겨 넣어진 것 아닐까. 공적론과 희생양론을 내면화한 여성들의 말은 피해가 아닌 공적을 증명함으로써만 애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둘러싼 경합 속에서, 죽음을 둘러싼 서열화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변용과 수정을 거쳐 험뎠 길어 올린 말로서 ‘구부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 5. 공적론(功績論)과 희생양론, ‘성의 방파제’라는 전제에서 출몰하는 일본인 ‘위안부’

치녀비의 비문을 분석한 LIU Gang의 논점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신문 기사나 비문 내용, 당사자 여성의 말, 유족회 측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 체험을 말하는 단어의 채택에는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치녀(乙女, 오토메)’라는 단어의 쓰임새”라는 지적이다, “능동적으로 개척단을 지켰다고 하든, 혹은 수동적으로 남성 단원에 의해 인신공양처럼 내놓아졌다고 하든, 소련군을 상대한 것은 ‘치녀’들뿐이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녀’로 묘사되는 개척단 여성들의 ‘접대’ 이전에 소련군의 상대가 되었던 이들은 관동군이 데려온 일본인 ‘위안부’였다.

도라이쇼(陶賴昭)에 주둔하던 소련의 수송사령관이 안조(安江) 단장을 먼저 초대했다. 아직 소련과 교류가 거의 없던 시기다. 그런데 큰일인 것이 단의 치녀들을 동반해 오라는 것이었다. 치녀들 중에 누가 가겠다고 나서겠는가. 이때 종전 15일에 도라이쇼에 정차했던 승객들이 단에 많이 와 있었다. 그중에 **군 위안부가 7, 8명 있었다.** 그중에서 가주기로 했다. **이 사람들이 단의 치녀들을 잘 보살펴줄 테니 함께 가주기로 한 것이다.** 이 초대는 아무 일 없이 끝났다.<sup>41)</sup> (강조는 필자에 의함)

LIU Gang은 위에서 인용한 개척단 남성의 수기를 소개하며, “개척단을 위해 희생된 여성을 현창한다는 이유로 위령비를 건립하고 비문을 새겼다면, 일본인 ‘위안부’<sup>42)</sup> 또한 현창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위의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는 구로카와 개척단, 지역 사회, 일본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접대’든 ‘정신(挺身)’이든, 이러한 단어들에 의한 규정 범위는 구

40)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75.

41) 川恵実, 『告白 岐阜・黒川満蒙開拓団 73年の記録』(かもがわ出版, 2020年) p.225,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82에서 재인용.

42) LIU Gang(劉罡)은 ‘중군위안부’로 표현했지만, 다른 기록(각주30 참고)을 통해 이들은 창기였던 일본인 ‘위안부’라고 추정되므로, 일본인 ‘위안부’로 수정하였다.

로카와 개척단 출신의 15명의 ‘처녀’로만 한정되어 있다. 일본인 ‘위안부’의 서사는 그 범위 밖에 있다. 말하자면, 일본인 ‘위안부’의 전쟁 체험을 언어화할 사회적 맥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sup>43)</sup>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은 공적론과 희생양론의 전제가 되어온 ‘성의 방과제’를 부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른 기록에서도 LIU Gang이 제시한 남성단원의 수기와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패전 직전 소련군의 참전으로 대혼란을 겪은 만주의 일본인들은 소련군이 들이닥치면 일본인 여성은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져, 소련군에게서 일본인 부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줄 여성들=여자특공대’를 편성하자는 의견을 일본인 ‘위안부’에게 종용했고, 이에 열세 명의 여성들이 ‘자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인 ‘위안부’는 “패전으로 세상이 변해 드디어 빛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꿈에 그리던 여염집 여자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번 흙탕물을 뒤집어쓰라는 것인가?”라며 한탄했다고 한다.<sup>44)</sup>

귀환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은 무작위로, 소련군의 강제로만 행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1945년 귀환 전 겨울을 나면서 피난소 생활이 장기화되자, 일본인들은 소련군 측과의 ‘협상’을 통해 소련군 전용 위안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인양원호청에 보고된 『만주인양사』에는 소련군이 여성을 요구해 오면 미리 위안시설을 설치하여 ‘특수직업’의 부녀자들을 투입함으로써 ‘미연에 화(禍)를 방지했다’거나, 그녀들이 ‘희생적 봉사’를 잘 견뎌내 주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희생되는 것은 오로지 단신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특히, 공장, 게이샤 등接客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일반 부녀자’와 구별되는 ‘특수직업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조가 없는 여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고, ‘특수직업 부인’을 ‘방과제’로 삼아 ‘일반 부녀자’들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다롄(大連)에서 철수한 전 적십자병원 관계자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45)</sup>

당시의 후츠키이치 보양소에서 임신중지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증언 속에서도 내면화된 창부차별이 출몰한다. 간호사 요시다 하루요(吉田ハルヨ)는 강간피해로 임신한 여성들 대부분이 말을 잃은 상태였고, 마취약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받으면서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원해서 성매매를 한 결과로 임신한 ‘팡팡’(パンパン)<sup>46)</sup>과는 다르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미 점령군의 아이를 임신한 ‘팡팡’ 여성들이

43) LIU Gang(劉罡), 앞의 글(2021) p.182.

44)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년, 148-149쪽.

45)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 저는 오사카초(逢坂町)에 있는 ‘쾌락’이라는 P-하우스입니다만, 그곳에 가서 니시보리 원장을 만나 손을 짚고 부탁했습니다. 당신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나, 제 처소에 있는 160명의 간호부는 모두 무구한 인간으로 부모로부터 맡겨진 것이고, 게다가 적십자 간호부가 끔찍한 꼴을 당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으니, 어떻게든 대역이 되어 그녀들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다다미에 손을 짚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서른네다섯 정도 된 여자가 나와서, 선생님 죄송하다, 여차피 상처 입은 몸이니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구해 드리겠다고 하며 여덟 명이 왔습니다. 이 여덟 명에게 간호부 옷을 입혀 간호부로 꾸미고 병동에 넣어 두었다가 저쪽이 요구할 때마다 내보내 줍니다. (...) 168명의 간호부는 제2회 귀환 때까지 전부 돌려보냈고 단 한 명도 소련의 마수(惡牙)에 걸린 자는 없습니다”. (金子麟, 衆議院海外同胞引揚に関する特別委員会 1950.3.31.), 山本ぬゆ, 「父の痕跡—引揚援護事業に角印された性暴力と混血の忌避」 『帝国日本の戦時性暴力』(京都大学グローバルCOE 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をめざすアジア拠点, 2013年) p.31에서 재인용. (강조는 필자에 의함)

46) 패전 후 미군에 의한 점령통치 하에 있던 일본에서 주로 미군 병사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가창(街娼)을 말한다.

후쓰카이치 보양소를 찾아오면, “이곳은 당신 같은 여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며 간호사들이 문전 박대를 하는 것을 본 목격담도 존재한다.<sup>47)</sup>

일본인 ‘위안부’ 열 명의 증언과 전후의 삶이 간략하게 수록된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 매매』에 소개된 야마우치 게이코의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말해 볼 수 있다. 1934년 동북 지방의 대흥작 당시 만 열네 살이었던 게이코는 전차금 300엔에 10년 계약으로 도쿄에 가서 예비 게이샤가 되었고, 어느 날 포주에게 진 빚을 군이 대신 갚아 준다는 말을 듣고 ‘위안부’가 되기로 했고, 열여덟 살 되던 1942년에 1년 6개월 계약으로 트럭섬으로 떠났다가 1943년 12월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게이코가 일본 요코하마에 상륙한 다음 날 미장원에 갔는데, “모공이 열려 있는 걸 보니, 더운 지역에 있다 왔나 보네요?”라고 직원이 묻는 바람에, “‘위안부’였던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머리도 안 하고 뛰쳐나와 버렸다”고 한다.<sup>48)</sup> 미장원을 뛰쳐나온 게이코의 두려움을 초래한 직원의 어조나 ‘광광’을 문전박대한 후쓰카이치 보양소 간호사들의 태도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창부차별이 공고히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환여성‘들’의 경험은 ‘일본인 여성들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피해로 뭉뚱그려질 수 없다. 귀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은 경험의 차이는 무사히 돌아온 여성들과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경험을 분리하거나, 일본인 ‘위안부’나 미혼여성들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식으로 고통의 경중을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그어진 구분선은 어떤 억압들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3년 6월 23일 오키나와 위령의 날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 시장은 “(전후) 오키나와 여성이 방과제가 되어 진주군의 강간을 저지해 주었다”고 말하고, 7월 5일에 연이어 “오키나와의 여성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여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라며 공공연히 ‘성의 방과제’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여 반발을 샀다.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는 이러한 인식이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공적론(功績論)과도 합류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인 ‘위안부’를 은급(恩給)<sup>49)</sup>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나 “이송 중에 충격으로 사망한 ‘위안부’를 준(準)군속 신분으로 하여 공적을 부여하자는 문건을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 많은 ‘위안부’는 병원에서 간호부가 되거나 준군속으로 얼마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속절차가 생겼다고 들었다”는 회상에도, ‘위안부’가 전쟁 수행에 공로가 있는 여성이라는 평가가 엇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50)</sup>

니시노 루미코는 “일본인 ‘위안부’의 처우는 ‘같은 일본인’이라고 해도 하나로 묶어 얘기할 수 없다. 일본인 ‘위안부’는 공창제 하의 여성들(예창기)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는데, 그 개념이 불러일으키는 ‘위안부’ 상(像)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상, 일본인 ‘위안부’의 실태와 문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위안소의 형태나 위안소가 설치된 시기, 위안소가 있던 지역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본인 여성이 ‘위안부’가 된 경위는 다양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해’ ‘위안부’가 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안소에서의 처우는 ‘위안부’가 된 경위와 복잡하게 얽혀있다.<sup>51)</sup>

‘위안부’가 되던 고액의 전차금을 군이 대신 갚아 주는 데다가 돈도 벌게 해 주고, 짧은 계약

47) NHK아카이브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110454\\_00000](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1110454_00000)

48)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위의 책(2021) 216쪽.

49) 일본의 은급법에 규정된 ‘은급’이란, 관리였던 자가 퇴직 혹은 사망한 후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50)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2021), 위의 책 147-148쪽.

51)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센터(2021), 위의 책(2021년), 131쪽.

시간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매춘 생활 속에 놓여 있던 여성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니시노 루미코는 일본인 ‘위안부’의 수기를 통해 여성들의 결심을 부추긴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한다. “나라에 도움이 된다”, “야스쿠니에 모셔진다”는 일종의 ‘애국심’, 말하자면 일본 사회에서 줄곧 소외되어 온 이들의 강렬한 콤플렉스를 공략하여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바람을 이용한 권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를 위해’라는 말이 ‘권유’가 아닌 일종의 ‘위협장치’로 기능했다는 다른 층위를 짚어내며, 전지(戰地)에서 구조된 군속 타자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받는 장면을 소환한다. ‘나라를 위해’라는 말을 들은 여성들에게 ‘거부’라는 선택지는 없었다.<sup>52)</sup> 이런 장면들은 앞서 언급한 만주개척단의 야스에 요시코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귀환과정에서 겪은 일을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 ‘개척단의 자결을 막기 희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상기한다.

기노시타 나오코(木下直子)는 일본인 ‘위안부’를 둘러싼 일본 내에서의 논의가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이 기폭제가 되어 시작된 ‘위안부’ 문제의 ‘문제화’ 이전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일본의 우먼리브운동, 침략-차별과 투쟁하는 아시아 부인회의에서 논의된 ‘위안부’ 문제와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시로타 스즈코(城田すず子)의 수기<sup>53)</sup>를 분석하며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다. 기노시타는 일본인 ‘위안부’를 가시화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인 ‘위안부’를 ‘피해자’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후 보상의 대상으로 일본인 ‘위안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국민’이 국가의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은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성을 명확하게 하며 피해자의 아픔이 들리게 될 담론의 장소를 창조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닐까.<sup>54)</sup>(강조는 필자에 의함)

위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전후 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원호’라는 사상에 대한 비판과 설명이 덧붙여져야 할 것 같다. 1990년대의 전후 보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1960년대에도 이미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후 보상’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는 않더라도 막연하게 자신들의 희생 혹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었다.

야마우치 게이코(山内馨子)는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안부’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어느 인터뷰에서 “요코이 씨<sup>55)</sup>가 전쟁의 희생자라고 말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희생자예요. 천황폐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뭐가 폐하를 위한다는 건가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간 거잖아요, 밀어먹을. 나는 결국 그 일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후생성에 가서 말하고 싶어요”라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sup>56)</sup>

52)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센터(2021), 위의 책(2021년), 145-146쪽.

53) 城田すず子, 『マリヤの賛歌』(岩波書店, 2025년)

54)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説空間』(勉誠出版, 2017), 253쪽.

55) 요코이 쇼이치(横井庄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28년 동안 미국령 괌 지역에 숨어 살다가 사냥꾼에 의해 발견된 잔류 일본군으로 알려져 있다.

56)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액션센터, 위의 책(2021년), 40쪽.

야마우치가 자신도 ‘전쟁의 희생자’라고 강조한 것은 1960년대 일본의 ‘원호’라는 발상에 그 맥락이 있고, 이는 귀환자를 둘러싼 원호 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 ‘전후 보상’이라는 표현은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쓰지는 않지만, ‘원호’의 틀 안에서라면 일본 국민은 ‘전쟁 희생자’라는 범주로 다뤄질 수 있었다. 일본 국회에는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이 1952년부터 시행되었다.<sup>57)</sup> 이 법의 목적은 “국가 보상의 정신에 따라 군인·군속이었던 자 또는 그들의 유족을 원호하는 것”이었다.

김학순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일본의 국회 심의에서 ‘위안부’를 ‘준(準) 군속’으로 취급하여 원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한 기록이 있다. 다음의 질의응답은 각각 1962년과 1968년, 일본 사회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후생성 원호국장의 답변이다.

고토 도시오 일본 사회당 위원 : 대동아 전쟁 당시 전쟁터에 ‘위안부’가 많이 파견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듣자하니 무급군속으로 파견되었더군요. 뿐만 아니라 파견에 대해서는 그 업자들과 군 사이에서 당신들 쪽에서는 몇 명을 파견하라는 식의 반강제적인 형태로 파견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들 파견된 ‘위안부’는 전쟁터에서 전투가 한창 치열해지거나 적의 갑작스런 습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부의 대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탄약 운반도 하는 등 마치 전투부대 같은 형태로 활동한 실적도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이 ‘위안부’에 대한 현재의 원호법 적용의 문제입니다만, 과거에 50~60명에게 적용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네모토 히로츠구 정부 위원 : 임시 간호부나 중군 간호부라는 형태로 야전병원 등에서 일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군속으로 처우하게 됩니다. 그 밖에 필리핀 전쟁 말기와 같은 전쟁터에서 어쩔거나 ‘위안부’든 누구든 하나가 되어 총알을 들고 일을 했다, 혹은 어떻게든 저항했다는 식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투 참가자가 된다고 보아 준 군속으로 처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968년 4월 26일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sup>58)</sup> (강조는 필자에 의함)

1960년대에 일본 국회 심의에서 오간 말들은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일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어 전쟁터에 오게 된 경위나 위안소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임시 간호부 혹은 전투 참여자로서 ‘전쟁에 협력한’ ‘실적’(實績)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일본인 ‘위안부’는 ‘원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도 사회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원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에 협력한 희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성적 착취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포함한 ‘피해자’ ‘보상’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이런 맥락에 주목한다면, 자기도 전쟁의 ‘희생자’라며 울분을 터트렸던 야마우치 게이코의 억울한 심정에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원호’의 대상으로 일본인 ‘위안부’를 포섭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되묻고, 다시금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57) 다나카 히로시 외 지음, 이규수 옮김, 『기억과 망각-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삼인, 2000년), 44쪽.

58)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엮음, 강혜정 옮김,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11년), 581-589쪽.

갖게 된다. 병사와 함께 옥쇄(玉碎)한 일본인 '위안부'에게서 나름의 애국심과 충의심을 보았다며 그녀들의 삶과 죽음을 '군국미담(軍國美談)'쯤으로 여기는 찬미의 논조들과 일본인 '위안부'를 원호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논리가 현재 일본 정부의 '위안부' 인식과 연동하여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위에서 인용한 1960년대 일본 국회의 질의응답은 '위안부'가 전쟁을 수행했다는 '공적'을 평가하려는 시선이 엇보인다. 침략전쟁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공적'의 유무로 '원호'의 대상이 될 자격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습 피해자와 같은 '공적' 없는 죽음을 원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죽음들 사이에서, 전쟁 피해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피해의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니시노 루미코는 “'위안부' 찬미는 '위안부' 공적론으로 수용되어 '위안부' 필요론을 지탱하는 사상적·체험적 버팀목이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필요론'은 틀림없이 권력자의 발상이며 '누군가는 위안부가 된다'는, 이른바 여성들 사이의 차별과 분리를 전제로 한 논리이기도 하다. '여자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소련군에게서 일본 부녀자들을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라고 요구받은 일본인 '위안부'나 귀환과정에서 소련군에게 '접대'를 강요받은 만주개척단의 미혼여성들에게 훗날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값진 희생'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 6. '가해국 국민' 혹은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사이를 공회전하는 일본인 '위안부' 논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국회에서는 2001년부터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이 법률에서도 피해자를 '구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본적을 가지고 있던 자 이외의 자'로 정의하여 보상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라는 틀에서 아시아의 피해에 관심을 두는 역사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던 한편으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sup>59)</sup>

위 법안을 제출한 일본 공산당 참의원 의원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sup>60)</sup>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로 일본인 '위안부'도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산당 안(案)이 3당 간 협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약간의 문제점으로서 국적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산당 안(案)에서는 일본의 '종군 위안부'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공장으로 끌려온 여성들이 유곽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다가, 해외의 '위안소'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군 위안부'로서는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에서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3당 간에 협의를 할 때는 ...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니까 일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여러 논의가 있어, 저희 당에서 그 부분은 양보했습니다. 법안으로서는 양보했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59)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 센터, 앞의 책(2021년), 5쪽.

60) 과거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관여했던 요시카와 하루코는 법안에 일본인 '위안부'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2016년에 조사팀을 꾸려 한 군의관이 조카딸에게 남긴 여성들의 명단을 단서로 일본인 '위안부'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에는 그 성과가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鴨川書房, 2023年)라는 책으로 로 출간되었다.

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일본 여성의 인권 문제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결론이 내려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당 안이 **국적 조항에서 식민지와 점령지로만 한정시키고 일본은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과에 기인합니다.**<sup>61)</sup>

위의 인용문에는 “침략 전쟁이니까 일본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 일본인 ‘위안부’는 ‘가해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침략 전쟁의 책임을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질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훗날 요시카와 하루코는 2023년에 출간된 저서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일본인‘위안부’를 잊지 않는다)』에서 “성노예가 된 여성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는 법안에서 일본인 여성만을 제외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안 제출 기한이 임박하여 이를 놓치게 되면 법안 제출을 1년 미뤄야 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당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식민지에도 일본의 유곽이 진출하게 되면서 그곳의 여성들도 ‘위안부’로 동원되었을 텐데, 그녀들이 ‘위안부’ 피해를 자처했다는 기록은 본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도 운동과 연구의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sup>62)</sup>

일본인 ‘위안부’가 전시 성적 강제의 피해자에서 제외될 때 내세워지는 정체성은 다름 아닌 ‘가해국 국민’이며, 이때 후경화(後景化)되는 것은 일본인 ‘위안부’의 피해 뿐만 아니라, 조선에 이식된 공창제의 실태와 그에 따른 식민지 여성들의 피해이다. 일본 식민지 도시의 상징은 신사와 유곽이라고 일컬어지듯,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공창제는 애초에 조선에 대한 침략과 전쟁 수행을 지탱하는 필수 제도로서 일본 정부, 식민지 권력, 군대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폐창규정 등은 법문상의 형식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아닌가를 가리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피해’가 무엇인지 재정의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내지 일본의 공창제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이식된 공창제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최근의 연구들<sup>63)</sup>은 일본인 ‘위안부’와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에 포섭된 여성들의 경험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에필로그- 여전히 변경(邊境)인 곳으로, 돌아왔으나 돌아오지 못한 귀환여성‘들’의 경험을 재배치하기

후쓰카이치 보양소의 답사로 시작된 귀환여성‘들’의 귀로와 향로에 대한 탐문은 여전히 많은 물음과 과제 속에 있다. 귀환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는 이른바 ‘불법임신’으로 규정되어 귀환항에서의 ‘낙태지시’에 따른 임신중지로 귀결되었다고 매끄럽게 결론지을 수 없다. ‘귀환여성의 성폭력 피해’라는 고정되고 고정된 설정은 식민지/개척지/점령지로의 이주 혹은 동원,

61)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앞의 책(2011년), 621-622쪽.

62) 吉川春子,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ジェンダー平等社会をめざして』(かもがわ出版, 2023年), 159쪽.

63)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에 대한 연구로는 宋連宝, 『植民地「公娼制」に帝国の性政治ヲみる-釜山から上海まで』(有志社, 2023年), 송연옥, 『식민지 ‘공창제’로 보는 제국 일본의 성정치-부산에서 상하이까지』(휴머니티스, 근간), 송연옥, 김영 편저, 『군대와 성폭력』, 박해순 옮김(선인, 2012년), 金富子, 金英, 『植民地遊郭-日本の軍隊と朝鮮半島』(吉川弘文館, 2018年), 박정애, 「어째서 공창과 ‘위안부’를 비교하는가-정쟁이 된 역사, 지속되는 폭력」,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민족주의와 망언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휴머니스트, 2024년)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책에 의해 '낳는 성'과 '돌보는 성'으로 규정된 여성들의 삶, 귀로에서의 기아, 질병, 성병을 포함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sup>64</sup>, 귀환 이후의 소외, 가로막힌 말들과 증언의 변용, 여성들의 미시 행위성(micro-agency)<sup>65</sup>, 식민자/개척자로서 여성들이 놓인 위치와 그러한 위상이 전복되는 경험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귀환'은 변경(邊境)'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변경일 수밖에 없는 조국이나 고향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귀환여성들에게는 변경'으로' 돌아온다는 모순적이고 분열증적인 이동의 경험이기도 하다. 귀환향에서 귀환자들을 맞이하는 내지 사람들의 태도에서 "진짜 일본인이 아닌 마치 다른 인종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구라모토 가즈코의 말은 '진짜 일본인'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귀환'을 '피해사화'하는 움직임 속에 매립되는 것은 식민지에서의 경험과 제국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모의 기억이 아닐까. 집단자결을 하든, 여성들에게 인신공양을 종용하든, 중국적으로 개척단의 운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남성 간부였다. 여성들에게는 집단자결도, 인신공양도, 가부장의 모습으로 육박해 왔기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여성들의 몸은 우생사상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혼혈 예방을 위한 '초법 규적 조치'가 내려지는 장소였고, 그러한 조치는 낙태죄 체제 하에서도 임신중지 시술은 '초법'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임신만 '불법'으로 규정했다. 혼혈아를 임신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미군을 상대하는 '쌍광'은 후쓰카이치 보양소 간호사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창부차별이 깊숙이 내면화된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일본인 '위안부'에게 '귀환'은,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

귀환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한쪽 '위안부'를 언급하는 증언도 발견된다.

지금도 '이제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로 화가 난다'고 말하면서도, '그 덕택에 모두가 살아서 올 수 있었다면 어쩔 수 없잖아'라고 모두들 말하지만, 분통한 생각도 들지요. (중략) 정말 말해서는 안 되지만,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야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한족(漢族)이 위안부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우리들 역시 결국은 같은 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sup>66</sup> (강조는 필자에 의함)

위의 인용문은 '당사자의 말'이라며 모셔지는 가운데 구로카와 개척단의 처녀비에 새겨진 문구처럼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적'이나 '희생'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자, 일본군 '위안부'라는 존재들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우리들 역시 결국은 같은 식으로" 겪었다며 고통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나름의 언어를 확보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은 성폭력 피해 너머 '한족' '위안부'와 식민자/개척자 여성의 위치성이 비대칭적으로 펼쳐지는 지평을 소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피식민지/점령지 여성들과 일본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에

64) 재생산폭력과 관련해서는 양현아,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 『법과 사회』 65호(법과사회이론학회, 2020년), 33쪽을 참조.

65) 윌 킬리카(Will Kymlicka)가 제안한 개념으로, 타자에 의해 환경 및 목표가 결정되었더라도, 실제적인 행동과 참여과정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및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 킬리카 엮음, 평화, 은재, 부영, 류수민 옮김, 『동물노동-종간 정의를 이야기하다』(책공장더불어, 2023년), 70쪽.

66) 우에노 지즈코, 아라라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엮음, 서재길 옮김,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가려진 피해자들의 역사를 말하다』(어문학사, 2018년), 250쪽.

대해 양현아는 “피식민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모집과 운송, 관리가 가장 용이했던 대상이었”고, “일본군 위안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조선 및 대만과 같은 피식민 지역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특성에서 식민지성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언급이 식민지인이 아니었던 여성들의 피해 혹은 위안소와 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과는 다른 성적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등급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피해들은 ‘다른’ 성격의 성적 피해로서, 다른 내용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7)</sup>

이지은은 ‘통치의 방식’에 주목한다. “교차적 시각은 일본인 ‘위안부’가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에 비해 ‘덜’ 고통스러웠다거나, 혹은 그 반대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리티 사이의 비교와 경합을 유발하는 것은 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통치의 방식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일본인 ‘위안부’가 ‘국민’으로 호명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양갈보’라 멸시받으면서도 ‘달려 버는 애국자’로 추켜세워졌던 장면이 겹쳐진다. 어느 쪽에서나 소외된 여성들이 ‘국민’ 대접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국가가 그녀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여성을 국가/민족에 따라 분할하고, 위계 짓고, 경합하게 하는 것은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이 선명해진다”는 것이다.<sup>68)</sup>

치녀비가 세워진 신사의 경내(境內)에 즐비했던 병사들의 위령비가 전쟁에서의 ‘공적’으로 죽음을 서열화하는 것이었다면,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의 고통도 그 경중을 비교하며 서열화되거나, “우리들 역시 결국은 같은 식으로”라며 평균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서열화나 평균화는 오히려 그 고통을 야기한 체제,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한 공모했던 공동체, 무엇보다 여성들의 삶의 내력의 맥락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에노 지즈코는 “성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압력에 의한 선택에서 강제까지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리즈 켈리(Liz Kelly)의 ‘성폭력 연속체’(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개념을 차용하여, 여기에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지를 포함시켰다. 우에노는 “성폭력 연속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 연속성 가운데에서 무엇이 문제화되고 무엇이 문제화되지 않는가 하는, 존재와 함께 부재도 드러나게 하는 색출적 효과”임을 강조했다.<sup>69)</sup>

이러한 개념을 귀환 여성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의 경험이 ‘피해서사화’되어 국가에 황령되는 존재의 실태에 반해, 식민자/개척자로서의 귀환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부재, 그리고 여전히 존재와 부재 사이에서 부유(浮遊)하는 일본인 ‘위안부’와 공창제 하의 조선인 여성들의 경험까지 ‘연쇄적으로’<sup>70)</sup>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67) 양현아, 앞의 글(2020), 45-46쪽.

68) 이지은, 「제국의 분할통치를 넘어」, 『프레시안』, (2021년 5월 1일).

69) 우에노 지즈코, 이라가기 신조, 히라이 가즈코 역음, 앞의 책(2020), 29쪽.

70) 연결한다는 것에는 기존의 집단을 반복하는 것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집단이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 공존한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연결된다는 행위에서 전자의 경향이 “무언가이어라”(Be)라는 질서적 요청이라면, 후자로 향하는 전개를 “연쇄하라”(Concatenate)라고 표현했던 프랑코 베라르디를 인용하며, 전자에서는 명명이나 소속과 관련된 이름이 중요한 반면, 후자는 동태(動態)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쇄하다’라는 동사는 기존의 집단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합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심정명 옮김, 『시작의 앞-프란츠 파농의 임상』, 문학과학사, 2020년, 275쪽 각주.